

“매머드 불교타운 세운다”

부다피아 보은정사

법당·강원·의료·여가시설 등 16개동 경북 울주에...대웅전 공정 50% 진척

부산 대구 광주 등 3개 BBS지방국 임원진은 지난 20일 대구 프린스 호텔서 회의를 열고 지방국 운영의 자율성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 따르면 지방국의 재정 자립과 자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방국의 광고수입은 전액 지방국에서 사용해야 하며,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특수성과 목적성을 살린 자율적인 지방국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결의했다. 특히 3개 지방국 임원진은 지방국의 이사회 참여는 당연히 받아들여져야 한다면서 지방국 개국에 사용된 출자액에 비해

산상승의 본부장 박순근씨, 불교광주방송 사장 이상진씨 등 12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또 불교방송 경리사고와 관련 철저한 진상규명과 경영진 전원사퇴등도 촉구했다.

이같은 3개 지방국의 결의문 채택으로 지방국설립시 부터 회자돼 온 독립채산제 운영문제가 다시금 불거져 나올 것으로 예상돼 불교방송 경리사고와 함께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불교방송 공공화 및 유용 사건이 사건 1달여가 지난 시점에 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7일 송병욱 상

BBS 지방국 독립채산 움직임

이사회 참여·광고수입 자체사용 등 결의 경리사고 대책위 활동부진 신뢰성 잃어

해서(6명당 1인의 이사직적 부여) 지방국 운영위원장, 이사장, 그의 1명을 포함하는 총3명에게 이사직적을 부여해 줄것을 촉구했다. 또 현재의 지방국 명칭도 '불교대구방송'에서 지역명이 우선된 '대구불교방송'으로 재조정하고, 지방국 '지사장'의 명칭도 '사장'으로 전환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3개 지방국 임원진은 이같은 내용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단계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불교대구방송 사장 법사님, 운영위원장 설소님 등을 비롯 불교부

무의 사표수리에 이어 사장직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불교방송 노동조합(위원장 신상)은 지난 21일 성명서를 통해 송병욱 전 상무를 불교방송과 관련된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게 할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이번 사건의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장이직적 즉각 퇴진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이번 사건의 재감사를 맡은 재단 이사회대책위원회(위원장 영달)의 활동이 신뢰성을 잃고 계속 표류할 경우 사태가 어떻게 번져나갈 것인지에 대한 불안감도 팽배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화원카드 한장이면 불교신행생활은 물론 의료혜택과 각종 첨단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21세기형 신개념 사찰이 선보인다.

경북 울산시 울주군 농소를 천곡리에 건립되고 있는 불교종합타운 부다피아 보은정사(주지 초연)가 바로 그곳. 부다피아 보은정사는 5천194평 부지에 2백30여인의 예산을 투입해 신형 교육 휴양 복지 문화 영묘장시설등 16개동의 매머드 종합불교타운을 건설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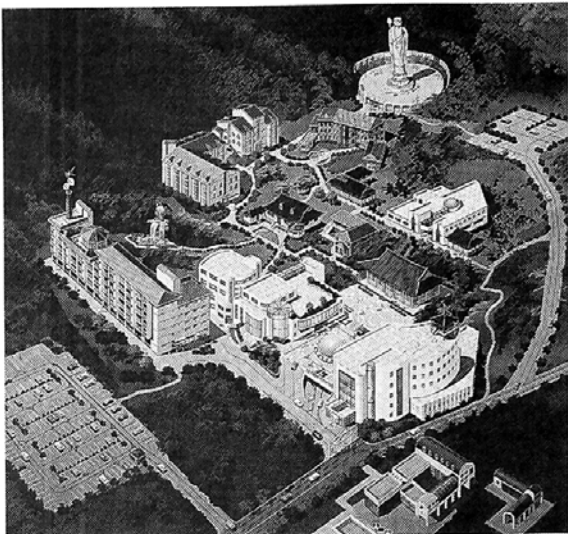
부다피아 보은정사는 '불교복지시대'를 열겠다는 의욕으로 유익 취미관 휴게실 문화시설 음악시설 체육시설에서부터 건강관리를 위한 검진 진료 치료 처치 등의 생활회로 클리닉까지 완벽하게 갖춰진다. 특히 보은정사는 다양한 정보와 여가생활을 위한 위성통신수신, 화상을 통한 통신망 등 구축하는 CCTV설치, 관계이 불설치, 디지털교반시설, 첨단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한 편리와 종합적인 사찰제반시설을 관리운영

하고, 데이터뱅크 구축등을 통해 불교정보통신사업도 펼칠 계획이다.

부다피아 보은정사는 현재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대웅전을 비롯 법보전 설법전 발심당 조실전 원주실 종각 원웅당(종무소)등이 들어선다.

또 스님들을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 마련할 계획이어서 눈길을 끈다. 불교고려연구소와 강습 및 포교교육을 위한 강원 선원이 설립된다. 그밖에 사찰학교육실 회의실 전시실 영상실 도서관 연구원 수련원등 교육수련공간도 건립한다.

이와함께 불교장외의식 공간으로 시랑루 지정전 연화정원(남쪽 안치당) 등이 건립되고, 원로스님 등의 요사채인 일심원과 노인복지용 안락원 그리고 복리후생및 편의공간으로 선유장(사우나 헬스 이·미용실 오락실)과 의료시설을 두루갖춘다. 특히 노유자들의 평생 안거실인 일심원과 안락원은 인체공학적으로, 편안한 일상과



경북 울주군에 건립중인 부다피아 보은정사는 신형 교육 문화 복지 휴양 장묘 영묘장 등 16개동이 들어서는 종합불교타운이다.



한국JTS는 지난 15일 인도에서 가장 빈곤한 지역인 동게스리에 '수자타 아카데미 준공식'을 가졌다.

한국 JTS '수자타 아카데미' 준공

인도 동게스리에... 학교·병원 등 건립

인도의 문맹퇴치와 빈곤극복 활동을 벌여온 한국JTS(이사장 법륜스님)는 지난 15일 인도에서 가장 빈곤한 지역인 동게스리에서 '수자타 아카데미' 준공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마하보디사사이터티 부회장, 보드가야매달 주지를 비롯 각국 스님 50여명과 가이시잡들 지역유지 및 한국JTS주최 성지순례 한국인 86명과 주민들 1천2백여명이 참석, 대대적인 지역축제 분위기 속에서 열렸다.

학령전, 초·중등교육기관인 수자타아카데미는 대지 1천2백평에 본관 1개동 부속건물 2개동을 만 3년만에 준공했다. 2층 본관에는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1학년, 유치원 3학급 등 총 9개교실에서 5백여명이 교육을 받고있다. 부속건물 2개동에는 병원 도서관 사무실 화장실 창고 등이 자리잡았다.

법륜스님은 "현재 수자타 아카

데미는 법당과 유치원교실이 들어설 2층건물을 신축하고 있다"고 말하고 "중학교과정에 상업 기술 교육을 실시할 계획과 함께 마을 사람들을위해 식수개발 주택개발 농업용수개발도 진행하고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JTS는 18일에는 석가족이 처음 지은 절인 파르나시의 아쇼카보드비하드 사원 개원식과 부처님절인식을 병행했다. 또는 한국 JTS는 상카시아 석가족 불교청년회를 위해 절과 학교를 세우기로 했다.

종단소식

동방대 학사 '대구에' 태고학원이사회 확정

태고종 태고학원(이사장 인곡스님)은 지난 18일 총무원 3층 회의실에서 11명 이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대구시 동구 진인동 신1-2의 5만7천여평을 동방대학 학사부지로 최종확정했다.

태고학원은 동방대학의 부지가 대구시로 최종확정됨에 따라 설립추진위를 종단에서 본격 가동키로 했다.

종무위원 20명 임명

태고종(총무원장 인곡)은 지난 18일 총무 교무 사회 재무 규합등 총무원 5개부서를 자문할 신임종단종무위원 20명을 위촉했다. 이날 임명식 중구에서 총무원장 인곡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종무위원의 권한을 확대하겠다"며 "총무원 운영에 종무원들의 의견을 대폭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교리프로 '신설'

불교TV 봄 개편

입춘을 넘긴 방송기에도 봄기운이 피어나고 있다. 불교TV가 오는 3월 17일부터 어린이대상프로그램과 일생애를 위한 교리프로그램 신설을 위한 교리프로를 신설한다. 불교의 비록 외화방송강화, 방송시간 확대 등 대폭적인 개편을 단행한다. 특히 이번 개편은 불교TV가 처음으로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명실상부한 영상포교사의 역할 수행에 한층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기대가 되고 있다.

불교TV가 자체제작으로 선보일 프로그램인 '신나는 연꽃동산'(매주 월

오후 4시10분)과 우주를 배경으로 새롭게 각색된 민화영화 '우주순오공'(매주 화·수·목 4시10분)이 본격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불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줄 '불교의 첫걸음'(매주 월·화·수 12시)과 '스타제일 우리절 회교'(매주 토·일 11시10분)등이 새롭게 방송된다.

또한 방송시간이 116시간 10분으로 확대됐다. 이로써 불교TV는 매일 오전 8시에 방송을 시작해 평일은 밤 12시35분까지 토요일은 밤 12시 15분까지 일요일에는 새벽 1시까지 방송을 연장하게 됐다.

조계종총무원(위원장 월주)이 이달말부터 5월 중순까지 석 달 사이에 자비의 탁발(2월 26일), 직할교구 합동 방생법회(4. 9),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원법회(일정 미정), 연등축제 전야 대법회(5. 10) 등 1천 명에서 5만명의 불자들이 참석하는 4건의 대형행사 개최 계획을 밝히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원법회는 지난해까지 종단협의회에서 주최해왔으나, 종단협 스스로 "관변단체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며 올해부터 열지 않기로 한 행사이다.

이같은 계획은 지난 18일 열린 직할사암주지 간담회에서 발표됐으며, 총무원장은 행사 개최의 목적이 '불교세 과시에 있음을 굳이 숨기려하지 않았다. 불교가 사회·정치적 영향력을 가지려면 뭔가 움직일 필요가 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불교신도는 많으나 응징력이 적다'고 말



정성운 (취재1부 차장대우)

한다. 그래서 불교인으로서도 정각회 미가입 의원이 많다"고 말해, 이들 행사의 성격을 드러내기도 했다. 물론 대형 행사를 통해 불교의 지력을 내외에 과시하겠다는 의도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대형행사를 개최한다고 해서 힘이 모아진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마음의 일치가 진정한 힘의 원천이라는 너무나도 단순한 진리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지역 교구본사에서는 "개혁종단 이후 분담금이 체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며 올해부터 열지 않기로 한 행사이다.

이같은 소리를 들은 원성 집행부는 "원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공동방생법회 일정을 묻는 질문에 일부 주지 스님들이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신중한 결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같은 소리를 큰소리로 듣지 못한다면 힘의 결집 이전에 작은 내부균열이 먼저 나타나지는 않을까 생각해 볼 일이다.

호신불 백의 관세음보살

무명을 밝히는 관세음 보살님!

"관세음 보살님"을 수정관으로 감싸고 있으며 하단에 역꽃반지가 있고 연꽃반지 가운데에는 불부사이어 보석3개가 있습니다. 또한 영구보존이 가능한 99% 순 은으로 아름다운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정관은 투명하여 모든 불자의 청정한 마음 「진여심(眞如心)」을 상징하며, 보석3개는 삼보에 귀의함을 뜻합니다.

목에 관세음 보살님은 나와 이웃의 佛心을 환출 돈독히 할 것입니다.

제조원 예광기획(의창등록 출원)
관세음보살 목걸이
연락처 (02)752-3617 · 779-2979 (09-17시까지 통화가능)
호출 : 012-303-9207 ● 부산대리점 051)467-1934

二載佛敎에서만 西藏香을 만듭니다

히말라야 천연향 탄생!

저희 이재불교에서 순수 천연향인 설산수도향과 영취삼매향을 만들었습니다. 화학방향제인 무스쿠를 사용한 일본제품보다 더욱 짙은 제향을 드립니다.

어찌하여 신도님들은 삼보에 공양할 향을 화학제품으로 선택하시니? 일본에서 저희제품과 같은 순수 천연의 저장향 가격을 알아보셨습니까? 2천만 불신도 여러분! 삼보에 계신 스님들은 항상 화학향으로 건강을 해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들은 무스쿠라는 화학 방향제를 사용한 일본 제품의 배척운동을 시작할 때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일본에 불교를 전파한 나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나라이니. 순수 천연향을 선택 하십시오!

※ 단기간에 열렬히 성원해주신 점포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로이 취급을 원하시는 점포는 본사로 직접 문의 바랍니다. 저희는 중간상인을 쓰지 않습니다.

二載實業 佛敎事業部 (02)467-6044~5 FAX (02)467-6045

천축옥산가 옥의 신비!

건강에 가장 중요한 물질인 뇌내 모르핀 분비를 활성화시켜 모든 병을 호전시킵니다.

氣(기)는 생명력, 강한 기를 당신에게!

따뜻따뜻한 느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 ★ 내용-부처님도량이 가람을 청정하게 가꿈시다 (단전호흡 효과)
- ★ 혈액순환을 도와 모든 성인병의 근원을 제거한다. (체내노폐물 제거)
- ★ 현대인의 불안, 초조, 신경질, 화병 또는 노화방지에... (뇌내 모르핀 활성화)
- ★ 장타력, 집중력, 골프머리가 잡혀 갑니다. (조금의 차가 1타를 이깁니다)

꾸준히 사용해 보십시오. 참으로 잘 들립니다.

북경중의원 부속중의원연구소 임상실험 결과
중국내 난리병 환자를 상대로 임상실험 결과
불면증96.9%, 심장질환자 92.9%, 귀울림 91.3%, 어지러움증91.3%, 두통83.3%, 고혈압77.8%, 관절염60%의 놀라운 치유 효과를 기록했다. (93. 2. 17 서울신문)

※ 해외의 효능은 옥비(대만)입니다. ※ 세계 유일의 진옥(眞玉)제품은 "옥산"이 세만 판매합니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브레딩 백화점 지하상가 위구) 777-0105 (우편판매)

大密旨·大總持가 담긴 道門功課經

육신보살 宏敎眞人 柳守元 지음
小眞居士 金在笑 編著

도저히 엿볼 수 없는 삼계제천(三界諸天)의 희유한 고급정보와 차원(次元)높은 설법자료가 담긴 옛 진인이 만드신 수도(修道) 비밀의 묘체(妙諦)

(上卷) 原音 原版으로 하는 音響禪
(中卷) 배우기 쉬운 原文對譯版
(下卷) 이야기 註解辭典

고급양장제본/베이스入/定價 상·중·하 98,000원

주문 및 문의

도서출판 淸靜

우 150-101 서울特別市 永登浦區 楊坪洞 1街 140
電話 : (02)635-2889, 671-2389
팩스 : (02)671-2306
온라인 : 국민은행 049-01-0518-775 청정출판사